

요한 1 서 묵상 25  
(10/1/2020, 목)

찬양: 491(543)(저 높은 곳을 향하여)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요한 1 서 5:18-21

말씀에 대한 이해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과 죄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영적 진리들을 다시 가르치며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성도와 죄의 관계. 18 절 -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죄를 아예 범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참된 사귄 속에 있는 성도는 그만큼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한 수사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속에는 죄의 문제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 치는 성도의 모습이 녹아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신 자가**” 지켜 주심으로 죄의 문제에서 건짐받는다는 약속의 말씀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와 악이 아닌 선함과 의로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악한 자**”는 성도를 파멸로 몰고가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만지지도 못하느니라**”라는 말씀은 악한 마귀의 능력과 영향력이 미치지 못함을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설사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요한은 성도가 알아야 할 영적 진리를 추가적으로 가르치며 확신을 줍니다. **19 절 -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타락한 모든 영역을 의미하는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지만, 성도는 하나님께 속했음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영적 소속이 어디인지를 언급하면서 성도들의 정체성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성도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 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언급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히 11:16) 사람들로 묘사했습니다. “**본향**”이란 자신이 진정으로 속해 있는 곳, 자신이 궁극적으로 돌아갈 곳으로 의미할 것입니다. 성도의 “**본향**”은 죄악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 나라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는 하나님께 속했음을 강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면서,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그 곳으로 나아갑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성도가 아는 것, 그리고 알아야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20 절 -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지요 영생이시라.**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이 때의 지각이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아는 온전한 이해와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각을 가질 때 (1) “**참된 자,**” 다시 말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 버리고 본성이 뒤틀려 버린 인간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감으로 다시 영적 지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성경을 깨달아 앞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압니다.** 요한은 다시 한번 성도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속함’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님과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깊은 사귄과 교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귀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지요 영생**”이십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핵심 가르침을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 중의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의 못 자국을 직접 보고 손가락을 그 못 자국과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말한 도마는,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본 후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요 20:28)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요한서신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한은 다시 한번, 영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선포하며,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심을 가르칩니다.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21 절 -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 1 서의 마지막 말씀은 우상숭배를 금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우리의 사랑, 관심, 예배를 빼앗는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을 비판하면서 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주었던 요한이 마지막에 “**우상**”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그가 영지주의를 “**우상**”과 같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상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 가는 사상, 타락한 풍조와 유행, 왜곡된 가르침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은 “**너희 자신을 지켜**”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다양한 종류의 죄와 악과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진리들은 무엇 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역사와 온갖 종류의 우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 자신을 지키므로 영적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오늘도 성도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 그리고 우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3. 장기화되는 코비드 19 를 주님의 능력으로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